



우리WON건강환급보험

건강환급금

배타적사용권 심층분석

받은 보험금을 뺀 납입보험료를 환급연령에 돌려주는
국내 최초 청구연동 개별 환급형 건강보험

PRODUCT ANALYSIS

분석 대상 · ABL생명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 『건강환급금』

분석 관점 · 시니어 보험상품 분석가 / 배타적사용권 심사·신상품 개발

작성 · 2026. 06



총평

본 상품은 "**사용하면 보장,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을 표방하는 환급형 건강보험이다. 핵심은 환급 연령(가입연령별 60~85세) 생존 시 **건강환급금 = 기납입보험료 - 기지급보험금(누계)**을 돌려주어, 모든 고객이 "**보험금 + 환급금 ≥ 납입보험료**"가 되도록 설계한 점이다. 계약자별 실제 지급보험금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개별화 환급**과, 이를 구현하는 **실제 보험금 반영 계약자적립액(준비금) 산출 시스템**이 신청의 두 축이다. 실제로 본 상품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 배타권을 획득**했다.

분석가 관점의 핵심은, 이 상품의 신규성이 **위험률이 아니라 적립·환급 구조(저축성 결합)와 그 산출 방법론**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실질은 **청구액만큼 차감되는 보험료 환급(claims-linked Return-of-Premium)**으로, 환급 재원은 순수보장형 대비 124~213% 수준의 추가 보험료(저축성 로딩)로 선납된다. 즉 만기환급형의 변형이며, 환급액을 청구에 연동·개별화한 것이 차별점이다. 같은 구조는 일본 메디칼Kit R(2013)에 선례가 있어 "업계 최초"는 **국내 최초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론 — 손실회피 성향 고객을 겨냥한 영리한 구조이며 청구가 환급을 깎아 **소액청구 억제(손해를 순기능)**가 작동한다. 다만 (1) 저축성 결합으로 **유지율·금리·보증비용(K-ICS)**이 수익성을 좌우하고, (2) "손해 없는 보험"은 명목·유지·환급연령 조건부여서 조기해지 시 손해가 가능해 **불완전판매 민원 리스크**가 크며, (3) 진짜 진입장벽은 개념이 아니라 retrospective 적립 시스템이다. 본 분석 추정 종합 약 78/100(실제 9개월 배타권과 정합적).

PROPOSAL SUMMARY

제안 사항 요약

원상품의 핵심 가치(손실회피 해소 + 노후자금 + 종신 건강보장)를 유지하면서, 저축성·유지율 리스크와 민원·실질가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프레임	핵심 제안	요지
확장	건강행동 연동 환급 가산	걸음수·검진·금연 등 건강데이터에 환급금을 가산해 "건강할수록 커지는 환급금"을 실제로 구현(지수·생활습관형)
집중	중도환급·유동성 옵션	저축이 환급연령까지 묶이는 약점 완화 — 부분 중도환급·환급연령 앞당김 옵션으로 손실회피 고객의 유동성 니즈 충족
전환	환급금 → 노후소득 전환	환급연령 일시금 대신 연금·분할 수령 옵션으로 "노후자금" 가치를 실질화
재구성	"건강 적립·노후 준비" 포지셔닝	"손해 없는 보험"의 과대해석을 피하고 적립·노후 메시지로 정직하게 재정의해 민원 리스크 완화



추진 순서 추천

단계	과제	준비사항
1단계 즉시	유지율·금리·보증비용 재점검	해지율 가정 민감도, 금리 시나리오별 적립부리·역마진, K-ICS 보증자본 영향 정량화. retrospective 적립 시스템 모형검증
2단계 즉시	불완전판매 방지 설계	"손해 없음"의 조건(유지·환급연령·명목)을 명확 안내, 조기해지 시 해약환급금 < 납입 고지, 민원유발요소 사전 점검
3단계 단기	건강행동 연동·중도환급 옵션	웨어러블·검진 데이터 연계 환급 가산 설계, 유동성 옵션 약관·요율 검토
4단계 중기	노후소득 전환·포지셔닝 재구성	연금 전환 옵션, 메시지 재정의, 저연령 디지털 채널 확대



SECTION 01

상품구조 해부

주계약(사망보장)에 10종의 환급특약을 결합한 종신 건강보험이다. 가입은 만 15~65세, 납입기간 10·15·20년. 입원·수술·통원·암치료 등 **반복적 보장**을 제공하면서, 환급연령 생존 시 **건강환급금**을 지급한다.

구분	보장	구조
주계약	사망	종신 보장 + 환급연령에 "건강환급금" 지급 + 환급 이후 종신 보장 지속
암치료환급특약	항암약물·방사선·암수술(각 연 1회)	
4대질병통원환급특약	암·소액암·뇌혈관·허혈심장 통원	
입원환급특약	입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입원	
수술환급특약	질병수술·재해수술	
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환급특약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	
1-5종 수술환급특약	1~5종 수술	

건강환급금 메커니즘

건강환급금 = max(0, 기납입보험료 - 기지급보험금 누계)

-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환급금 ↓ / 적게 받으면 환급금 ↑ (계약자별 개별화)
- 누적 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 환급금 0, 단 **보장은 종신 지속**("Unlimited upside")
- 모든 고객이 보험금 + 환급금 ≥ 기납입보험료 (명목·유지·환급연령 조건부)

가입연령	환급연령	비고
만 15~29세	60세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환급연령도 상향 — 납입·보장 기간을 확보
30~49세	70세	
50~59세	80세	
60세 이상	85세	

구조의 경제적 실질

건강환급금의 재원은 **순수보장형 대비 추가 보험료(저축성 로딩)**로 선납된다(예: 1-5종 수술보장 기준 124%, 입원보장 138%). 즉 본 상품은 **청구액만큼 차감되는 만기환급형(claims-linked ROP)**이며, 보장원가 위에 환급(저축) 원가가 얹힌 결합상품이다. 따라서 분석의 무게중심은 보장 위험률이 아니라 **환급·적립 원가와 그 산출 방법론**에 있다.



국내외 유사 상품 조사

2.1 국내 유사 상품

국내 건강보험은 **순수보장형 약 85% · 만기환급형 약 15%**(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 2025.12 기준) 구도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에 확정 환급금**을 주는 반면, 본 상품은 환급액을 **청구에 연동해 개별화**한 점이 새롭다. 무사고 시 보험료를 낮춰주는 "무사고 계약전환"이나 해약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형은 환급 강화/축소의 변형일 뿐, 청구연동 개별 환급과는 다르다.

구분	대표 유형	환급 구조	본 상품과의 차이
지급방법 유사형 만기환급형 건강보험	만기 시 확정 환급금 지급	만기·확정액(청구 무관)	본 상품은 청구액 차감·개별화, 만기 아닌 환급 연령
인센티브 유사형 무사고 계약전환·건강할인	무사고·건강등급 시 보험료 인하	보험료 할인(환급 아님)	납입보험료 자체를 환급하지 않음
보장 유사형 암·입원·수술 특약	표준 건강 담보(정액)	보장만, 환급 없음	본 상품은 동일 보장 + 환급 결합

시사점 — 환급형 수요(만기환급형 선호 약 47%)는 분명하나 시장 공급은 15%에 그쳐, 청구연동 개별 환급은 국내에서 새로운 공백을 점유한다.

2.2 일본 유사 상품

일본에는 본 상품과 **개념적으로 거의 동일한 선례**가 있다. 東京海上日動あんしん生命의 メディカルKit R(2013)는 소정 연령(예: 70세)에 **기납입보험료에서 그동안 받은 입원급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健康還付給付金"으로 지급**한다. 청구가 없으면 전액, 있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구조로 본 상품과 본질이 같다.

다만 차이도 뚜렷하다. 일본 Kit R은 주로 **주계약(입원) 보험료**를 환급 대상으로 하고 특약 보험료·특약 보험금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하는 반면, ABL 상품은 **다수 환급특약(10종)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고 계약자별 적립액을 실제 보험금으로 재산출한다. 또한 일본 Kit R은 **健康還付特別** **부분에만 해약환급금이 존재하고 중도해지 시 납입액보다 적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본 상품의 저축성·유지율 의존과 동일한 성질을 보여준다.

시사점

(1) 청구연동 ROP는 **해외 선례가 있는 검증된 구조**여서 "업계 최초"는 국내 최초로 한정해 평가해야 한다(독창성에 영향). (2) 일본 Kit R이 환급부에만 해약환급금을 두고 조기해지 손해를 명시한 점은, 본 상품의 **유지율·금리 의존과 민원 리스크**가 구조적임을 방증한다. (3) ABL의 차별점(특약 다종 적용 + 실제 보험금 반영 적립 시스템)을 진보성 논거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학적·법률적 해석

본 상품은 특정 질병·처치가 아니라 **표준 건강 담보(암치료·통원·입원·수술)의 묶음 + 환급 구조**이므로, 의학적 쟁점보다 **상품·회계·소비자보호 측면의 해석**이 핵심이다.

상품·회계적 해석 — 환급의 본질

건강환급금은 회계·계리적으로 **보증성 환급(최소 환급보장)**에 가깝다. 청구가 적을수록 환급이 커지므로,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 무청구 고객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누적청구에 대한 **풋옵션(put) 성격의 보증부채**로, 저축성 보험의 적립·보증 평가 영역에 속한다. 그 재원이 추가 보험료 (저축 로딩)라는 점에서 본 상품은 보장과 저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다.

법률·소비자보호 해석

핵심 쟁점은 "**손해 없는 보험**" 표현의 정확성이다. "납입보험료 전액 수령"은 (i) 환급연령까지 **유지(미해지)**하고 (ii) 생존하며 (iii) **명목금액** 기준일 때만 성립한다. 조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고(일본 Kit R도 동일 고지), 수십 년 뒤 명목 환급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면 실질 손해일 수 있다. 따라서 광고·판매 시 조건의 명확한 고지와 불완전판매 방지가 법률 리스크의 중심이다.

해석이 위험에 주는 함의

- **순기능** — 청구가 환급을 깎으므로 소액·불요 청구 유인이 줄어 손해율 관리에 유리하다(개발자료도 명시).
- **주의** — "손해 없음"의 조건부성·명목성은 민원·분쟁의 핵심 소지이며, 저축성 결합은 금리·해지·보증자본 리스크를 수반한다.

위험률 산출 및 적립 방법론 추정

본 상품은 위험률 자체보다 **환급·적립 원가와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신규성이 있다. 따라서 ① 보장담보의 위험률(표준), ② 건강환급금의 기대원가, ③ 실제 보험금 반영 계약자적립액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보장 위험률식에는 유지율을 반영하지 않으나, **환급·적립 평가에서는 유지율·해지율·금리가 핵심 입력**이다(원칙의 예외 명시).

① 보장담보 위험률 — 표준(빈도형)

입원·수술·통원·암치료 담보는 반복 발생 가능한 빈도형으로, 담보별 단위 위험률은 다음과 같다.

$$q_{x, \text{담보}} = u_{\text{시행, 담보}} \times E[\text{보험금, 담보}]$$

$u_{\text{시행, 담보}}$: x세의 연간 담보별 시행(입원·수술·통원·암치료) 발생률 (건/인년)

$E[\text{보험금, 담보}]$: 담보별 1회 지급액 (정액 또는 종별 가중)

데이터 — 보험개발원(KIDI) 경험위험률, HIRA·NHIS(급여 항목), 자사 경험.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임상데이터·학술자료로 보완(한국 데이터 4계층 적용).

② 건강환급금 기대원가 — 보증성(저축)

$$E[\text{건강환급금}] = E[\max(0, P_{\text{기납입}} - \sum_t B_t)]$$

$P_{\text{기납입}}$: 환급연령까지의 기납입(특약)보험료

B_t : t년차 지급보험금 합계 = $\sum_{\text{담보}} (u_{\text{시행, 담보}} \times E[\text{보험금, 담보}])$

$\max(0, \cdot)$: 누적청구가 납입보험료를 넘으면 환급 0(보장은 지속)

핵심 — 환급은 청구분포에 대한 보증부채: $E[\text{건강환급금}]$ 은 누적청구 $\sum B$ 의 분포에 의존하는 **푼옵선행 기대값**이다. 청구가 적은 우량체일수록 환급이 커지므로, 환급 원가의 결정변수는 **청구분포(저클레임 비중)·해지율·할인율(금리)**이다. 이 원가는 추가 보험료로 선납되며, 보장 위험률과 분리해 저축성 평가로 다룬다.

③ 계약자적립액 — 실제 보험금 반영(신규성)

기존 계약자적립액은 예정기초율 기반 PV(미래급부)-PV(미래순보험료)로, 동일 성·연령·납입기간이면 동일하다. 본 상품은 **경과시점 t 이전은 실제 지급보험금, t 이후는 예정보험금을 반영**해 계약자별로 재산출한다(retrospective-prospective 혼합). 이로써 적립액·해약환급금·건강환급금이 **청구 이력에 따라 개별화**된다. 이 산출 로직과 시스템 구축이 진보성의 실체다.

위험률·원가 산출 데이터 추정

필요 데이터	구분	후보 소스	가용성·접근
담보별 시행률 u ·지급액 E	위험률		표준 확보



필요 데이터	구분	후보 소스	가용성·접근
		KIDI 경험위험률, HIRA·NHIS(급여), 자사 경험, 비급여는 병원데이터·학술	
누적청구 분포(ΣB)	환급원가	자사 청구 경험, KIDI, 시뮬레이션	자사 경험 핵심
해지율 $L(t)$	적립·환급	자사 해지경험, 업계 표준 해지율	핵심 입력 · 원칙상 위험률 제외
할인율·적립부리(금리)	적립·보증	시장금리 시나리오, ALM 가정	금리리스크 직접
보증비용·자본	건전성	K-ICS 보증·금리리스크 모듈	자본부담 평가

실제 산출은 보장 위험률(표준)과 환급·적립 원가(저축성 평가)를 분리 수행한다. 환급·적립의 정확도는 해지율·금리·청구분포 가정에 좌우되며, retrospective 적립 시스템의 모형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SECTION 05

기초 통계 추정 및 정합성 검정

28.5→15.9%

30대 생보 신계약 비중('10→'19)

85% / 15%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비중

47%

만기환급형 선호(자사 패널)

지표	신청자료 기재	대조·해석	정합성
저연령 가입 감소	30대 28.5→15.9% (-12.6%p), 30대 신계약 -7.2%/년	KIRI·보험개발원 통계와 정합	타당
미가입 사유	"보험료 손해" 인식(보장 대 비 비쌌·필요확률 낮음)	보험연구원 2023 행태조사	타당·손실회피 근거
환급형 선호	만기환급형 선호 47%, 건강 환급보험 관심 66.1%	ABL·Embrain 패널 1,000명	자사 패널·선택편의 주의
시장 공급	순수보장 85% / 만기환급 15%	생보협회 상품공시('25.12)	타당
추가 보험료	1-5종 수술 124%·입원 138%(순수보장 대비)	환급재원=저축 로딩	구조와 정합

정합성 핵심 — "손해 없음"의 조건부성과 실질가치

(1) "모든 고객 최소 납입보험료 이상 수령"은 **환급연령까지 유지·생존, 명목 기준일** 때만 성립한다. 조기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다. (2) 순수보장형 대비 24%(수술)~38%(입원) 추가 보험료를 수십 년 납입한 뒤 **무이자 명목 환급**을 받는 구조여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면 실질 수익은 낮다. (3) 선호도 조사는 자사 위탁 패널이라 일반화에 신중해야 한다. 유용성 논거를 "손해 없음"이 아니라 **"손실회피 심리 충족 + 노후 적립"**으로 정렬하는 것이 정확하다.



리스크 진단

역선택 (Anti-selection)

환급 매력은 **저클레임을 기대하는 건강체**를 강하게 유인한다. 이는 보장 위험률에는 유리하나 환급 부담을 키운다. 동시에 "보장 한도 제한 없음"은 고위험자에게도 매력적이어서 풀 구성이 양극화될 수 있다. 가입심사·요율 세분화로 균형을 관리해야 한다.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이중적이다. 누적청구가 납입보험료 미만인 구간에서는 청구가 환급을 1:1로 깎아 **소액·불요 청구를 억제** (손해율 순기능)한다. 그러나 누적청구가 납입보험료를 넘어선 이후에는 억제력이 사라지고 "한도 무제한 보장"이 과잉청구를 유인할 수 있다. 정당한 청구의 위축(소비자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유지율·금리·보증 (핵심 리스크)

건강환급금은 장기(환급연령 60~85세) 보증부 환급으로 **저축성** 성격이 크다. (1) **해지율 가정 오류**는 적립금·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주고, (2) **금리 변동**은 적립부리·역마진·재투자 위험을 낳으며, (3) 최소 환급보장은 **K-ICS 금리·보증 리스크 자본**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실제 보험금 반영 적립 시스템의 **모형·운영 위험**이 신규로 추가된다.

불완전판매·재보험

"손해 없는 보험" 메시지의 조건부성(유지·생존·명목)으로 **민원·분쟁 리스크**가 크다. 조기해지 손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재보험은 보장 부분만 표준 출제가 가능하고, 환급(저축)·금리 리스크는 재보가 아닌 **ALM·헤지** 영역으로 다룬다.

리스크	수준	완화 장치
유지율·금리·보증(저축성)	높음	해지율 민감도·금리 시나리오·K-ICS 자본 점검, ALM/헤지, 적립 시스템 모형검증
불완전판매 민원	높음	조건(유지·명목) 명확 고지, 조기해지 손해 안내, 민원유발요소 사전 검토
역선택(건강체 쏠림)	중	가입심사·요율 세분화, 풀 모니터링
모럴해저드(한도초과 후)	중	한도·정의 관리, 청구 심사
모럴해저드(한도내)	낮음	구조적으로 억제(청구=환급 감소)

경쟁사 대응 시나리오

카피 가능성

청구연동 ROP는 **일본 메디칼Kit R 등 해외 선례가 있는 검증된 개념**이어서 컨셉 모방은 어렵지 않다. 실질 진입장벽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 반영 계약자적립액 산출 시스템과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이다. 9개월 배타권 동안의 선점이 핵심이며, 이후 경쟁사가 유사 구조를 개발원 검증을 거쳐 출시할 수 있다.

대체 담보 출시 경로

- **만기환급형 변형** — 확정 만기환급형에 "무사고 보너스"를 얹어 청구연동 효과를 근사. 가장 빠른 대응.
- **주계약형 ROP** — 일본 Kit R처럼 주계약 보험료만 환급 대상으로 단순화해 시스템 부담을 낮춘 버전.
- **건강증진형 결합** — 건강데이터 연동 할인·환급으로 차별화한 디지털 상품.

차단 전략

(1) **적립 시스템 고도화·자산화** — retrospective 적립의 정교함과 운영 데이터를 후발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 (2) **건강행동 연동**(§ 9)으로 단순 ROP를 넘어선 차별화. (3) **채널·브랜드 선점** — 우리금융 그룹 연계 채널로 9개월 내 점유 확대. (4) **소비자 편익 실증**으로 보호기간 연장·재신청 근거 축적.



상품개선 제안

원상품 가치 해체

핵심 기능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납입보험료를 환급연령에 돌려줘, 보험금+환급금이 최소 납입보험료 이상이 되게 하는 종신 건강보장.
고객 Pain Point	저연령층의 "보험금 못 받으면 손해(낸 돈을 못 돌려받음)"라는 손실회피 인식과 순수보장형 거부감.
제공 가치	손실회피 심리 해소 + 환급연령 목돈(노후자금) + 종신 건강보장 + "건강할수록 커지는 환급" 인센티브 심리.

→ 위 3요소를 출발점으로, 확장·집중·전환·재구성 4프레임으로 제안한다(프레임별 2개).

확장 ①

건강행동 연동 환급 가산

"건강할수록 커지는 환급금"을 심리가 아닌 실제로 구현한다 — 걸음수·검진·금연 등 건강데이터에 환급 가산(지수·생활습관형, 상대위험 조정).

1. **담보 정의** — 건강행동 등급에 따라 건강환급금에 가산을 적용(예: +5~15%).
2. **보장 방법** — 웨어러블·검진 연동, 연 단위 등급 갱신, 환급 시 정산.
3. **보장금액 제안** — 기본 환급 + 건강등급 가산, 상한 설정.
4. **대상 고객** — 건강관리 적극 저·중년.
5. **차별화 포인트** — 단순 ROP를 넘어선 건강증진 결합 → 카피 난이도·진보성 강화.
6. **위험요소** — 데이터·개인정보, 자기선택·역인과(이미 건강해서 활동), 가산 원가.

확장 ②

노후 담보 확장(간병·치매)

환급연령(노후 시점)과 맞물리는 간병·치매 담보를 결합해 "노후 준비" 가치를 강화한다(질병·범위 확장).

1. **담보 정의** — 장기요양·치매 진단·간병 담보를 환급특약군에 추가.
2. **보장 방법** — 동일 환급 구조에 편입, 종신 보장.
3. **보장금액 제안** — 노후 의료·간병비 수준에 맞춘 정액·연금형.
4. **대상 고객** — 노후 대비 30~50대.
5. **차별화 포인트** — 환급연령 = 노후 진입과 결합한 "건강+노후" 패키지.
6. **위험요소** — 간병 위험률 장기 불확실성, 환급 원가 증가.



집중 ①

중도환급·유동성 옵션

저축이 환급연령까지 묶이는 약점을 완화해 손실회피 고객의 유동성 니즈를 충족한다(사각지대 보전).

1. **담보 정의** — 일정 경과·요건 충족 시 건강환급금의 부분 중도인출·환급연령 앞당김 허용.
2. **보장 방법** — 적립액 범위 내 중도환급, 잔여는 종신 보장 유지.
3. **보장금액 제안** — 적립액 일정 비율 한도.
4. **대상 고객** — 유동성 민감 저·중년.
5. **차별화 포인트** — "묶인 저축" 인식 해소 → 가입장벽 ↓.
6. **위험요소** — 해지율·적립 변동성 ↑, 시스템 복잡도, 도덕적 해이.

집중 ②

우량체 환급 강화형

저클레임 우량체에 할인·환급을 집중해 건강체 유인을 상품성으로 전환한다(고가치 세그먼트 집중).

1. **담보 정의** — 건강등급 우량체 전용 환급 강화 플랜.
2. **보장 방법** — 건강등급 할인 + 환급 가산.
3. **보장금액 제안** — 우량체 환급률 상향.
4. **대상 고객** — 건강검진 우량·비흡연 등.
5. **차별화 포인트** — 환급 매력과 우량체 풀을 결합해 손해율·수익성 동시 개선.
6. **위험요소** — 역선택 반대급부(고위험 배제 논란), 등급 기준 공정성.

전환 ①

환급금 → 노후소득 전환

환급연령 일시금 대신 연금·분할 수령 옵션을 제공해 "노후자금" 가치를 실질화한다(지급방식 전환).

1. **담보 정의** — 건강환급금을 일시금/연금/분할 중 선택 수령.
2. **보장 방법** — 환급연령에 수령방식 선택, 잔여 종신 보장.
3. **보장금액 제안** — 연금 전환 시 적립 부리 반영.
4. **대상 고객** — 노후소득 니즈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 "환급=노후연금"으로 실질가치·메시지 강화.
6. **위험요소** — 장수·금리 리스크, 연금 전환 규제·세제 검토.

전환 ②



환급 시점·형태 선택권 확대

고정된 환급연령을 고객이 더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확대한다(기간·트리거 전환).

1. **담보 정의** — 환급연령을 일정 구간에서 고객이 선택·조정.
2. **보장 방법** — 선택 연령에 환급, 이후 종신 보장.
3. **보장금액 제안** — 선택 시점별 적립액 차등.
4. **대상 고객** — 생애주기별 자금 계획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 개인 자금 계획에 맞춘 맞춤 환급.
6. **위험요소** — 적립·해지 예측 복잡, 안티셀렉션.

재구성 ①

"건강 적립·노후 준비" 정직한 포지셔닝

"손해 없는 보험"의 과대해석을 피하고 적립·노후 메시지로 재정의해 민원 리스크를 낮춘다(메시지 재구성).

1. **담보 정의** — 동일 급부, 세일즈를 "건강 적립·노후 준비"로 전환.
2. **보장 방법** — 조건(유지·명목) 명확 고지 내장.
3. **보장금액 제안** — 기존 유지.
4. **대상 고객** — 손실회피·노후 준비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 신뢰 기반 메시지로 장기 브랜드·민원 리스크 관리.
6. **위험요소** — "손해 없음" 소구력 일부 완화 가능.

재구성 ②

저연령 디지털 셀프 가입형

개발배경의 표적인 30·40대를 디지털 채널·구독형 메시지로 직접 공략한다(세그먼트·채널 재구성).

1. **담보 정의** — 간소화 플랜의 디지털 셀프 가입형.
2. **보장 방법** — 앱 기반 가입·환급 시뮬레이션 제공.
3. **보장금액 제안** — 저연령 부담 수준 보험료.
4. **대상 고객** — 30·40대 디지털 친화층.
5. **차별화 포인트** — 우리금융 디지털 채널과 연계, 저연령 신규 유입.
6. **위험요소** — 불완전판매 방지(셀프 가입 고지), 환급 구조 이해도.



SECTION 10

부록·참고자료

시장·소비자 통계

KIRI·보험개발원	세대별 가입 변화 — 30대 신계약 비중 28.5%('10)→15.9%('19), 30대 연평균 -7.2%, 저연령 유입 감소
보험연구원(2023 행태조사)	40대 이하 미가입 사유 — "보장 대비 비쌌" 11~25%, "필요확률 낮음" 23~32% → 보험료 손실회피 인식
생명보험협회('25.12)	건강보험 상품 비중 — 순수보장형 342종(85%) / 만기환급형 58종(15%)
ABL·Embrain 패널(n=1,000)	만기환급형 선호 47%, 건강환급보험 관심 66.1% — 자사 위탁 조사(선택편의 유의)

해외 선례

메디칼Kit R(일본, 2013)	東京海上日動あんしん生命 — 소정 연령에 기납입보험료-수령 입원급부금 차액을 健康還付給付金으로 지급. 청구연동 ROP의 해외 선례. 환급특칙부에만 해약환급금 존재, 조기해지 시 납입액 미만
--------------------	--

계리·건전성

위험률 데이터	KIDI 경험위험률, HIRA·NHIS(급여), 자사 경험, 비급여는 병원데이터·학술
환급·적립	자사 청구분포·해지율, 금리 시나리오, retrospective 계약자적립액 산출(보험개발원 3차 검증)
건전성	K-ICS 금리·보증 리스크 자본 — 최소 환급보장의 자본부담 평가

실제 심사 결과

- 2026년 1월 출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우리금융 편입 후 첫 성과)
- 주계약 사망보장, 가입 만 15~65세, 납입 10·15·20년, 10종 환급특약

본 보고서의 위험률·원가 내용은 데이터 확보 전 방법론·구성요소 추정 단계다. 보장 위험률(표준)과 환급·적립 원가(저축성 평가)는 분리 수행하며, 환급·적립의 정확도는 해지율·금리·청구분포 가정과 적립 시스템 모형검증에 좌우된다. 통계 수치는 공개 시점 기준이다.